

New Shade

세계 최고의 색감에 도전한다

한국제지는 고객들의 요구와 시장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제품의 색상(Shade)을 'Creamy White'에서 'Bluish White'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색상을 적용하게 된 이유와 그 동안의 준비과정, 신색상의 특징과 고객만족을 향한 한국제지의 끊임없는 노력을 소개한다.

종이의 색상은 소비자가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품질특성 중의 하나이다. 한국제지는 지난 1999년 12월 퍼펙트 화이트(Perfect White)를 지향하며 색상을 한 단계 향상시킨 이후 더블아트지를 더 밝고 더회계 생산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이가 예외일 수는 없어 색상(Shade)에 대한 고객의 선호 경향은 끊임없이 바뀌고 고급화되어 왔다.

최근의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의 아트지 색상 추세(Shade Trend)는 Bluish White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 국내의 H시는 이에 발맞추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트지 색상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해외의 유명 제지사인 Sappi, Stora Enso 등도 최근 1~2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최근의 선호 색상인 밝은 Bluish White로 변경하였다.

한편, 내수시장에서는 한국제지 아트지의 고유 색상인 Creamy White가 타사와의 대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거래선으로부터 아트지 색상 변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고, 해외 선진 시장인

미국·호주에서도 현지의 색상 변화 추세에 맞춰 아트지의 색상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내외 시장 조사 결과

아트지 색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월 초부터 시작된 시장 조사는 한 달 보름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국내외 시장별 특성에 맞춰 실시되었는데,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광고사, 기획사, 출판사 등을 중심으로 220여 개사를 개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 시장은 각 국가별로 한국제지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선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추천 받았다.

조사 결과 한국제지가 내린 결론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색상 선호 경향은 기본적으로는 Bluish Whit를 선호하나,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강한 Blue감을 선호하고, 해외 시장은 종이 자체의 밝은 색감을 알릴 수 있는 약한 Blue감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시험생산과 신색상 출시

이에 한국제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시험 생산한 종이 견본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 7월 중순경 새로운 색상을 확정하였다. 곧이어 7월 하순경 온산공장 3호기에서부터 새로운 색상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는 전 라인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 신색상 제품은 국내의 경우 8월부터 출시하여 판매중에 있는데, 일부 인쇄업체에서 시험 사용해 본 결과 색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장에서 내수의 판매 증진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8월 주문품부터 신색상으로 생산하고 있어 실제로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3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신색상 제품으로 인쇄한 리플렛(Leaflet)을 발송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였다.

신색상의 특성

일반인이 시각으로 느끼는 백색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백색이라고 느끼는 백색은 Blue감이나 Violet감이 혼합되었을 때 증가한다. 그러나 Blue감이 강할 경우 탁해 보일 수가 있고, Violet감이 강할 경우 붉은기가 돌아 값싸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색감을 적절히 혼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고백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아무리 이상적인 배합 비율이라 할 지라도 염료만으로 채색에 있어서의 White만을 높일 경우 소위 시체 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급스런 고백색의 생산 노하우는 얼마나 밝게(Bright)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제지 신색상의 장점은 백색도(Whiteness)와 명도(Brightness)를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데 있다. 고백색은 백지 상태에서 단순히 육안 비교만으로도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그 진가는 인쇄 후에 나타난다. Bright한 고백색 아트지는 콘트라스트

트(contrast)가 증가하므로 일반 색상의 아트지와 비교할 때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또한 백색 바탕(배다)을 인쇄할 때 과거에는 백색의 별색 잉크를 사용하였으나, 고백색 아트지의 경우 백지면을 그대로 미인쇄부로 남겨 둘 수 있어 고급스러움과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므로 까다로운 고급 인쇄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고객 만족을 위한 한국제지의 노력

종이의 색상 변경은 제지회사의 측면에서는 대단한 모험이라 할 수 있다. 종이 생산에 사용되는 주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사와의 원가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신색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나쁠 경우에는 매출 감소라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러나 한국제지는 이러한 모험을 감수하고 제지 선진국에서 최고의 색감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 Oji Paper의 Top-Kote와 경쟁할 만한 세계 최고의 색감을 지향하며 품질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러한 품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가 상승의 상당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지(Base Paper)의 색상을 대폭 향상시키고, 도공 안료를 고백색용 고급 안료로 바꾸어 종이의 색상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향상시킨 세계적인 색상을 완성하였다.

이는 창사 이래 기술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쇄용지 산업을 선도해온 자부심에서 비롯된 신념이며, 그에 앞서 한국제지 종이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끊임없는 동기 부여와 성원이 있었음을 한국제지는 잘 알고 있다. 비단 색상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그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끝 없는 도전정신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